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뽁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병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런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열종의 버팀목이지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를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이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판판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틀뜨려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 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저로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감독 구혜선의 100만명 꿈

메트로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서울 '수원전 7연패' 탈출

사흘 남은 수능… 고득점 기원 두손 모은 부모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4일 오전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 66만8522명 수험생이 치르게 되는 8일 수능 시험은 전국 1191개소 고사장에서 열린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날 40만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며 주식 개장과 폐장 시간은 1시간씩 늦춰진다. 듣기 평가가 있는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시간에는 고사장 주변 항공기 운항도 제한된다. /뉴시스

아픔 보듬는 '1000원의 힐링' 열풍

백화점마다 불황·고물가에 지친 고객마음 달래주는 알뜰강좌 봇물

캔 커피보다 김밥 한 줄 보다 싸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들을 수 있는 백화점 문화강좌가 속속 등장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저렴해도 내용은 알차다. 재테크나 자기계발 강좌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불황과 고물가 속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힐링(Healing, 치유)을 주제로 한 강좌가 대세다.

1000원짜리 알뜰 강좌는 통은 일회성 특강이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보통 3개월 단위의 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최근 백화점들이 겨울학기(12월~내년 2월)를 앞두고 수강료가 싼 단기 강좌를 늘리고 있다. 저렴한 강좌로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여 최근 부진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 살림살이가 힘겨워진 소비자와 백화점의 처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올 겨울학기에 1000원짜리 강좌 수를 가을학기보다 15%가량 늘렸다.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 봄부터 겨울학기까지 일회성 강좌를 이용한 회원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면서 이 같은 알뜰강좌를 강화했다. '빅마마'로 유명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명사 강연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또한 무료이거나 수강료가 5000원 이하인 일회성 강좌를 이번 겨울학기에 67개나 준비했다.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규모다. 1000원짜리는 7.2%, 2000원짜리는 64.7%씩 많아졌다.

1000원짜리 강좌에 인색했던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도 지난해보다 50% 늘려 1000원 강좌를 18개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케이크나 인형을 만드는 취미 수업이 많았는데 최근 클래식 음악회, 인형극 등 문화공연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백화점 고객의 핵심이라 할 직장인과 주부가 대부분이라 이들의 시선을 끌 최신 사회 트렌드가 여실히 반영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로 시간을 내는 관심만으로 트렌드를 배우고 느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백화점들은 이번 학기 알뜰 강좌에 '힐링' 콘셉트를 강화했다. 현대백화점에선 혜민스님이 진행하는 '마음 치유 토크와 명상'을 비롯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요가, '여성멘토 신달자의 여자를 위한 인생 10강' 등을 1000원으로 들을 수 있다.

AK플라자는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션이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I Love You 기적을 만들다'와 홍성남 신부가 자기마음 치료방법을 제안하는 '차라리 화를 내라' 를 1000원 강좌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관계자는 "알뜰 특강 강좌는 주로 유명 인사들의 강연이 많이 인기가 높다"며 "불황기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힐링' 콘셉트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내년부터 1학년3반 김민서 엄마도 마음대로 못들어간다

학부모도 출입증 있어야 학교 출입

내년부터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패용해야 학내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각급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일과중에는 학교 내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과 행정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를 통해 방문증을 발급받아 패용해야만 학내 출입이 허락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학교의 32%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 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 학교,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경비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18%가량 설치돼 있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규학교 설립 때나 학교 건물 증·개축의 경우 출구전용도어 혹은 자동개폐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채행초기자

울긋불긋 가을이 간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4일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물 위에 비친 단풍사진을 찍으며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난해보다 15% 증가>

돈나올 구멍없어 58조 깼다

석달새 생명보험 해약 176만건 서민 노후생활 불확실성 더 커져

올해 들어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와 해약은 176만6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58조7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실효·해약이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 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급전 필요하면 해지말고 '중도인출' 등 활용

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을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향후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기능이 있어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기능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가족에게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등병'없이 일병·상병·병장

병사계급 3단계 축소 주장

이등병을 없애 병사들의 계급을 현행 4계급에서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 김원대 박사와 대외협력실 김종원 중령은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와 문제진단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등병 계급을 폐지하고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1954년부터다. 이후 군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꼭 투표하는게 청춘 스타일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투표시간 연장 촉구 대규모 서명운동이 열린 가운데 국민희망 프로미스121 회원들이 청년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가구·다중 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

오늘부터 거실·침실로 사용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2개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과 다가구주택(3층 이하·1개 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19세대 이하)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 변경 대상이 2개로 제한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든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어서 세입자들 간 분쟁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다도 즐기는 동심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나라사랑 축제한마당에서 용인 보라교육센터 다도 시연팀이 다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복 두려운 피해자' 검찰이 이사비 지원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보복을 우려해 주거지를 옮길 경우 검찰이 이전비를 지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9~10월 총 7명에게 40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 등의 거주지나 주소기 가해자에게 노출될 경우 보복 위험성에서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등이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중대범죄 신고자, 증언, 친족 등도 포함된다. 또 학교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학이나 이사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리기자 grace17@

에어부산 넓어진 'A320-200' 도입

9호 항공기…162석 운영

에어부산의 9호 항공기가 1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에어부산이 이번에 도입한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A320-200 기종으로 최대 180석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앞뒤 좌석 간 거리를 여유 있게 조정, 162석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종은 7호기와 8호기인 A321-200 기종에 이어 LCC 중 에어부산이 최초로 도입한 에어버스 A320 시리즈 중 하나로 A320은 타 기종에 비해 기내 내부공간이 넓어 좌석 및 통로 폭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에어부산 측은 설명했다.

또 에어부산의 9호기는 7·8호기와 동일하게 오디오 및 영상을 시청이 가능한 LCD 모니터도 갖춰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내년 A321-200 항공기 3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기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A320 시리즈로 기종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중구 '화합의 페스티벌'

부산 중구는 오는 10~12일 남포동역 지하도 상기 일대에서 남포동 S상인회 주최로 불우이웃을 돕고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희망 나눔 화합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룰렛' 경품 행사를 열어 1000여 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우산, 양치미, 뮤지컬 관람권, 종합건강검진 20%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당뇨·혈압체크, 건강상담 등 무료 건강검진코너도 마련한다.

남포동새마을부녀회에서 해남 황토고구마(3kg) 1상자를 1만1500원에 판매하고, 작가들이 만든 재활용 수공예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장시간 이용 알려주고 목 스트레칭 도와주는 앱

'자라목' 대상에 뽑혔다

모바일 앱 공모전 시상식

지역 모바일 앱 산업의 활성화와 우수 앱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열린 제3회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에서 'Turtle Neck-자라목'이 대상을 차지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일 시상식을 열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2편 등 18개의 작품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 및 부산 소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됐으며 신청서 187건, 개발 작품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들 작품 중 Tutle Neck-자라목(대상), 얄콩달콩(최우수상), Bottle Battle(최우수상) 등이 수상작 18편으로 선정된 것.

대상으로 선정된 'Tutle Neck-자라목'은 고개를 쭉 내밀거나 숙이는 등 좋지 못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이들에게 일정 시간마다 알림을 설정해 긴장된 목을 스트레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다.

또 공동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얄콩달콩'은 카메라 기능 및 사진 편집기보다 더 편리한 사진 수정 기능을 부여한 사진 편집 앱이며, 'Bottle Battle'은 두더지게임 형식으로 단순하고 중독성 강한 아케이드 게임 앱으로 주변 사람들과 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모드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사용자 체감형 동영상 플레이어 'WWing Player', 실시간 야구 정보를 제공하는 '야구 위젯',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인 '비즈 온 와이어'가 공동 우수상으로, 'Punch Crash', '눈에 보이는 구구단', '쑥쑥한자' 등 12편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 창업지원실 입주 및 창업자금 지원 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 부산모바일앱개발센터의 창업 교육, 마케팅, 상용화 지원 등과 연계해 1인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수미기자 kamsm@metrobusan.co.kr

"사랑의 연탄이 왔어요" 부산지방우정청 남부산우체국은 3일 오전 9시부터 남구 우암동 일대에서 기초생활수급 가정 30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4500장, 이불 30채, 라면 30박스를 배달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배달은 남부산우체국 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 회원, 직원과 그 가족 40여 명이 남구 우암동 일대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추달했다.

노인·가족단위 여권발급 ↑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지역의 노인, 가족 단위 여권 발급 신청이 대폭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61세 이상 여권 발급 비율은 전체의 9.7%. 9월 말까지 61세 이상 건수가 지난 해보다 23%나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여권발급 민원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자치구로, 올 들어 9월 말까지 2만305건을 처리하는 등 하루 평균 110여 건을 발급했다.

이는 연로한 부모와 함께 떠나는 효도관광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구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지난 2월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여권팀 내 '여권발급 수수료 판매 창구'를 운영 중이다.

BS금융지주 3분기 당기순이익 1131억원 – 누적 당기순익 3091억원

지역밀착·긴축 경영 성과냈다

BS금융지주는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기순이익 1131억원 등을 포함한 2012년도 3/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3091억원이 됐다.

BS금융지주 측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국내경제 또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지역밀착 경영에 비롯한 우량자산 위주의 여신성장 지속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판매관리비 절감 등 긴축경영을 통해 3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68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BASEL 1 기준)은 16.35%, 수익성 지표인 ROA와 ROE는 각각 1.02%와 13.46%를 기록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연체대출채권 비율은 각각 1.48%와 0.93%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실적은 누적 당기순이익 3007억원, BIS 비율과 ROA 및 ROE는 16.00%와 0.99% 및 13.14%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연체대출채권 비율은 각각 1.38%와 0.75%를 나타냈다.

또 BS투자증권과 BS캐피탈, BS저축은행은 3분기까지 각각 28억원과 148억원, 37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BS금융지주 임영록 부사장은 "4분기에도 계열사 간 연계영업 확대와 시너지 창출, 우량중소기업 발굴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강자의 위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신세계센텀시티 사은대축제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는 2일부터 1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개점 82주년 사은대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센텀시티는 '8200원 특가전', 식품 10대 초특가전, 여성패션·남성패션·잡화·해장품 등 전 장르에 걸친 '82대 특보상품전'과 세일 페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한편 신세계센텀시티 1층 골든듀 매장에서는 82주년을 맞아 1억9000만원에 달하는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등 선보인다. 전시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팝아트 대표작가 작품 한자리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9~29일 전시회 마련

롯데갤러리 부산본점은 팝아트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The Great of POP ART'전을 오는 9~29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키스 해링, 탐 웨슬만, 데이비드 걸스타인 등 팝아트 대표 작가의 회화, 조각, 데이비드 걸스타인의 스틸 오브제 및 아트상품 등 모두 7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대중적인 상표나 인기 스타를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표현한 '앤디 워홀', 만화를 팝아트적으로 재해석한 '로이 리히텐슈타인', 낙서화의 형식을 빌린 독창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회 문제들을 언급한 '키스 해링', 가장 미국적인 시고방식으로 팝아트를 표현한 '탐 웨슬만', 회화 같은 조각 기법으로 일상의 모습을 신나는 축제의 장면들로 표현한 '데이비드 걸스타인'. 이들의 작품들을 통해 팝아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전면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팝아트는 현대 미술의 한 경향으로 자본주의의 영향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들로 미술 작품에 수용했다.

씽씽~자전거 대행진 경남 거창군은 군민 자전거 '그린벨' 개통을 기념해 지난 3일 스포츠파크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이 은행나무 낙엽이 떨어진 강변로를 힘차게 달리는 모습. /거창군 제공

광안대교 케이블 모형 설치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민남의광장 옆 목재데크에 광안대교의 메인케이블 모형과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길이 2.2m, 높이 2.05, 폭 1.8m의 광안대교 케이블 모형은 현재 광안대교에 설치된 메인케이블과 같은 크기와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화려한 조명 속에 감추어진 광안대교의 웅장하고 정교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케이블 모형은 광안대교 케이블의 설치 공사를 담당한 고려제강에서 제작 설치했다. 실물 모형과 함께 개요, 자재, 공사개요 등에 적힌 안내판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10일 벡스코서 열린다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2012' 기간 중 '게임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게임기업 채용박람회에는 넥슨·대오위즈게임즈·네오플·라온 등 국내외 유명 게임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우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가 온라인박람회(gstar2012job.fair.incruit.com)에 이력서를 먼저 등록한 뒤 현장에서 기업담당자가 등록된 구직자를 검색해 면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전문 컨설턴트가 각 구직자에게 맞는 기업과 매칭 후 현장면접까지 안내해 주는 양방향 매칭시스템이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02)2186-5296

단일화 넘을 묘수는 경제?

박근혜 주말내내 일정 안잡고 정책 골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가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다.

4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는 이번 주 중 경제 및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주말을 맞아 3~4일 이틀간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경제 관련 정책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잠재성장률 1%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지금까지 3.5%의 수준을 보였던 잠재성장률은 201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집권 기간 평균 4.5%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로 국민이 길어짐에 따라 취약층과 중소기업 등에 1조9000억원가량을 투입, 지원하는 단기 부양책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늘(새 일자리 늘리고)·지(기존 일자리 지키고)·오(고용률은 오르게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규직 채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배동호기자 [illegible]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왼쪽부터)가 4일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원불교 14대 경산 장응철 종법사 추대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토론 무산 朴때문이야"

文·安 "박근혜 불참으로 방송3사 취소·연기" 朴측 "먼저 하란 뜻"

대통령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방송 토론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각 대선 후보 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신경민 미디어단장은 4일 "우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사 연속 초청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것은 세 후보 중 한 명(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3회의 법정토론을 제외하고는 어떤 TV토론도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3자 토론도 아닌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순차토론을 거부하는 후보가 국민 앞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KBS 자체 사정에 의해 연기된 것이지 박 후보가 취소한 게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가 거론되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먼저 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박 후보 때문에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KBS는 대선 후보를 초청, 티운홀미팅 방식의 토론회를 계획했으나 2일 박 후보 측 불참을 이유로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MBC와 SBS 역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대담회를 기획했으나 박 후보 측의 무응답을 이유로 각각 무기한 유보하거나 무산시켰다.

/김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금 뭐하세요" 3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우정총국에서 열린 서울지방우정청 주최 편지쓰기 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편지를 쓰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65세 이상 노인 28.5%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의심된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은 인지기능 장애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기능상태 수발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665명의 인지기능을 검사한 결과 응답자 8851명 가운데 28.5%가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아 치매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65~69세(15.5%), 70~74세(25.0%), 75~79세(35.9%), 80~84세(41.6%), 85세 이상(67.1%) 등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14%는 약 먹기, 전화 이용, 식사 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용 등 10가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평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

노인이 수발을 받는 비율은 남성(87.4%)이 여성(70.9%)에 비해 더 높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72.1%)은 가족이었다.

수발을 받는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53.0%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큰며느리(12.3%), 딸(10.3%), 장남(8.2%) 순이었다.

이윤경 부연구위원은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독거 노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제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30.6%는 "사회적으로 소외감 느껴"

한편 노인의 30%는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7~8월 전국 65세 이상 남녀 노인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6%(612명)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성별로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 비율이 32%로 남성(26.2%)보다 더 많았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과의 단절이 노인에게 소외감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며 "여성 노인의 경우 사회 교류가 적은 데다 자녀 세대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크게 갈등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황윤희기자 unique@

"술 취해서 그만…" 관용은 없다

음주폐해예방 파랑새포럼 주간 기획 1 음주폭력

주폭범죄 사회적 비용 연 9조 근절노력 동참을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 그리고 술을 즐기는 민족이어서인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술로 인한 1년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4조2700억원에 이르고, 폭행·상해 등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만 해도 연간 8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3년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이 8조8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실로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술로 인해 겪어야 하는 폐해가 비단 돈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상가, 재래시장 등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툭하면 술판을 벌이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상습·고질적으로 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이른바 '주폭'을 척결하고자 경찰에서는 그동안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그간의 단속에 힘입어 주취자와 관련된 112신고도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던 주취자들도 눈에 띄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다.

주변의 많은 상인들도 주취자가 줄어들어 장사하기 좋아졌다고 말하고, 늦은 시간에 공원에 가도 예전과 달리 무섭지 않아 좋다는 시민들의 격려도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폭도 사회적 약자인 만큼 엄정 대응은 재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주폭의 상당수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찰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주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상인 또는 부녀자들이다.

엄밀히 말해 주폭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경찰도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주폭들의 치료·재활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알코올상담센터나 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상담 주선 및 치료비 감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주취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사회 각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우리 사회에 주폭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이택영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Kospi				
10/29	10/30	10/31	11/1	11/2
1881.52	1899.58	1912.06	1896.44	1919.72 (+25.28)

Kosdaq				
10/29	10/30	10/31	11/1	11/2
494.98	502.31	508.31	508.83	513.37 (+4.54)

해외 증시	
Nikkei (일본)	9051.22 (+104.35)
Hang Seng (홍콩)	22111.33 (+219.46)
Shanghai (중국)	2117.05 (+12.62)
Dow Jones (미국)	13093.16 (−139.46)

EXCHANGE RATE	
달러	1091.50
엔(100)	1356.77
유로	1407.38
위안	174.89

신보·기보 연대보증 여전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회사인 은행 등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과 대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2일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

뉴SM5, 프랑스 느낌 뺐다

엔진·변속기 그대로… 국내 인력이 한국 정서 맞게 리디자인

2일 SM5의 부분변경 모델인 '뉴SM5 플래티넘'을 발표한 르노삼성차 임직원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같은 날 내수 실적에 이어 수출에서도 쌍용차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르노삼성 임직원은 애써 주력 모델인 SM5의 상품성이 뛰어난 만큼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주문 아닌 주문을 외치고 있었다.

뉴SM5 플래티넘은 엔진과 변속기는 그대로이고 디자인만 바꿨다.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투입된 이전 모델과 달리 국내 인력이 한국 정서에 맞도록 제작했다.

음파 패인 기존 보닛 디자인에서 중앙부에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했다. 후드에서 범퍼 밑까지 일체형 라인을 그어 안정감과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다. 헤드램프에는 LED를 넣어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쉽도록 했다.

신차는 전후좌우에 차량이 근접하면 사이드미러 안쪽 램프에 불이 켜지며 경고해 주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SW)과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을 동급 유일하게 장착했다. 패밀리 세단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동급 세단 중 가장 뛰어난 연비는 옛 기준으로 14.1km/ℓ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1.7%가량 오른 가격이 알맞다. 경쟁차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작지만 SM5만큼은 가격 동결이라는 신선한 프라이싱 전략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PE 2180만원 ▲SE 2307만원 ▲SE 플러스 2465만원 ▲LE 2612만원 ▲RE 2759만원.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54%

9년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는 줄었는데 전세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4일 국민은행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 2003년 5월 5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36%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1%, 2월 51.2%, 3월 51.4%, 4월 51.7% 등 큰 증가율 없이 움직였지만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9월부터 큰 폭으로 올라 10월에 54%를 기록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갤럭시 S3 3000만대 판매 돌파 삼성전자는 5월 말 출시한 '갤럭시 S3'가 5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판매 3000만 대(공급 기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갤럭시 S3'는 각각 출시 50일, 100일 만에 글로벌 판매 1000만 대, 200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출시 5개월 만에 30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0.45초당 1대씩, 하루에 19만 대가량 팔린 셈(157일 기준)이다. /삼성전자 제공

'강북의 잠원' 친환경·친교육 주거지

'e편한세상 마포 3차' 분양

대림산업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91-1번지 일대의 용강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마포3차' 모델하우스를 최근 오픈했다. e편한세상 마포3차는 지하 2층, 지상 11~21층, 9개 동, 총 5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까지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한강시민공원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신흥 주거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면적 ▲59㎡ 6가구 ▲84㎡ 41가구 ▲123㎡ 24가구 등 총 7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e편한세상 마포3차는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 보행자의 편의성과 개방감을 ... 지하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 폭을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더 넓은 2.4m로 적용(일부 제외)했다.

e편한세상 마포3차의 확장형 평면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모델로 시공된다. 확장된 거실 발코니에는 2중 창호와 신소재 단열재로 여름철에는 외부의 더운 공기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 실내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마포3차는 교육환경 및 생활권의 시설도 풍부하다. 염리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숭문중·고교 및 광성중·고교 등 주요 학군이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마트 공덕점, 용산 전자랜드,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이 2km 이내에 있다.

5월 3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보다 많은 관련 자료는 e편한세상 홈페이지(www.daelim-apt.co.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 1899-3120 /김지성기자

증권사들 채권가격 담합… 192억 과징금

지난 6년간 채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20개 증권사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총 192억 3300만원이 부과됐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던 것.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2004년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즉시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합의했다.

또 이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떨거지'로 표현하며 이들의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일부러 낮게 결정하자고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2010년 12월 10일 이후 (담합 관련) 메신저를 없지만 위원회에서 종가를 2010년 12월로 잡았다"며 "증권사의 소송 가능성을 위한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시민파워 보여줄 매니페스토 운동

청론탁설

유병길 <언론인>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내용도 더러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은 다분히 선심성으로 포장된 것도 적지 않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엇비슷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우열을 가리기조차 어렵다.

다만 여야 간 대표주자와 무소속 주자 등 3자 대결구도만 확실히 인식될 정도다. 이미 후보의 그릇(?)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판가름났다고 본다. 때문에 지지도가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쟁점이 나와도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다.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항은 '야권 단일화'일 뿐 후보들의 공약에는 거의 식상해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될 대통령후보가 어떤 구상을 하며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내용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보다 높은 진정성을 지녔는가를 가늠해야 한다. 특히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얼마 전 여야 정당에서 발표한 집권 후 5년간 복지비용을 보아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에서는 164조7000억원을 자체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새누리당 복지비용은 281조원이 소요되며 민주통합당 복지비용은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사정이나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봐서는 재정 위기만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후보들의 재원확보 방안은 매우 불확실하다. 때문에 지금 유권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져야 할 것은 '공약검증'이다. 바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공약은 선거에 앞서 유권자에 대한 계약이다. 때문에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 근거 등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참다운 공약의 가치가 있다.

지금 시민운동단체에서 레드카드를 꺼내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후보는 1997년 매니페스토로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3년 일본의 가나가와 현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는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대선 구도는 양자 대결이나 3자 대결이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신뢰도를 가늠해 보는 일이 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서점가도 朴-文-安 싸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반 여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대선 및 정치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포토프리즘

우리 꿈도 날아라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한국연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제12회 서울특별시장 대상 서울시민 연날리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뉴시스

우리가 원하는 '마루치와 아라치'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수나라와 살수대첩에서 싸운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어릴 때 이름이 아니다. '을지'는 군권(軍權)을 가진 이의 직함이고 '문덕'은 왕이 내려준 시호다. 을지는 우리말 우두치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군의 위계상 위에 있는 존재, 즉 대장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문과 덕을 갖춘 장수라는 뜻이 된다. 을지문덕 장군의 '장군'은 그래서 군더더기가 된다.

신라의 시조 김알지(金閼智)의 '알지'도 아라치의 한자역으로 알, 즉 근본이 되는 수장이라는 뜻을 가졌다. '치'가 붙는 말은 본래 일을 쓰는 위치에 있는 인물을 가리켰다. '양을 치다' '사람을 주먹으로 치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는 위력적 존재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진의 수장 누루하치나 다루하치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진 요동지역의 언어흔적이다. 누루하치는 누리를 다스리는 자, 다루하치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막리지(莫離支)도 마루치의 한자역이다. 마루는 높다는 뜻이고 를 내자 붙었으니 대왕수라고나 할까. 이 '치'는 나중에 의미가 전락해서 그 치, 저 치, 장사치 등으로 본래의 위상을 잃게 된다.

신라의 왕 마립간(麻立干)은 마루한 또는 마루칸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칸, 왕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의 명칭을 보면 애초에 우리 식 군장개념이 있었고 그걸 표현하는 언어도 존재했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상실했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글이 생긴 것은 한참 뒤 조선조 중엽이었으니 당대로서는 우리의 말과 발음에 가장 가깝게 기록한 이름이라고 하겠다.

이 명칭들을 보면 알(근원), 누리(온 세상), 마루(높은 뜻) 등의 의미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알다'의 '알'도 사실은 어떤 것의 근원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그 앎의 깊이가 만만치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들 지도자들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그 내면에 품은 뜻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깊이다.

근원적 사유, 넓은 시야, 높은 뜻 이런 것이 지도자의 내적 품성과 본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무릇 수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어떤 마루치, 어떤 아라치, 어떤 다루하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깊고 보는 것이 광활하며 뜻이 하늘처럼 높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제언·주장(원고지 3~4매 내외) 등을 e-메일(opinion@metro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쉬움 큰 대선 TV토론 무산

우형주(29·회사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여전히 무기한 유보된 상태여서 유권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MBC 100분토론 초청 공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무응답한 것에 이어 SBS의 대선후보 초청 담화도 박 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3사 중 마지막으로 제의된 KBS 순차토론 역시 박 후보 측에서 "대선 확정 후보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두 후보를 정식 후보로 인정하지도 않고 TV토론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TV토론은 표면적으로는 후보 간의 대화지만 실제는 가장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민과의 간접 소통이다. 세 후보 중 어느 한 사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대선 후보로서 가장 쉽게, 가장 널리 국민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은 거부하면서 시장에 나가 유권자의 손을 몇 번 맞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히 후보의 생각을 중간 전달자의 왜곡이나 수정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TV토론은 그 어떤 형태의 공약집보다 생생하고 가치 있다. 단일화 여부와 토론 순서의 공정을 운운하며 TV토론을 주저하는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보다 선거의 승패를 중요시하는 후보의 작은 그릇을 증명할 뿐이다.

여전히 47%:47% 전쟁

오바마 경합주 앞섰지만 재검표 공방 재연될수도

승리가 눈앞에?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브리스토우 지피루브라이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3일(현지시간) 리전시간,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AP 뉴시스

초박빙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우세로 좀점 기우는 가운데 막판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하는 중립적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류한 11개 경합주 중 오하이오와 뉴햄프셔, 미시간 등 8곳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거인단 확보에서도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237명, 롬니 206명,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243명, 롬니 206명로 오바마의 우세를 점쳤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NBC뉴스 조사와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47% 대 47%로 박빙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대법원 소송까지 갔던 2000년 '플로리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는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게 전국 득표에서 53만7179표 뒤졌지만 대법원 소송과 재검표 공방을 벌인 끝에 271명의 선거인을 확보해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다.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가 전통적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와 경합주인 오하이오(18명), 위스콘신(10명), 뉴햄프셔(4명)에서 이기면 269명을 얻는다. 롬니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지역)에 격전지인 버지니아(13명), 아이오와(6명), 네바다(6명), 콜로라도(9명), 플로리다(29명)를 가져간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미국 헌법은 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도 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원 투표로 가면 롬니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청소년 밤 11시 이후엔 통행금지
- 천안문 지날땐 택시창문 열지마
- 전남편 살리려 재혼하고 간기증
- 드라마 찍느라 유적지 훼손심각

美 '250억 복권 주인' CCTV로 찾았다

전기요금도 내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69세 미국 여성이 복권당국의 노력으로 당첨된 지 5개월에 만에 2300만 달러(약 250억원) 당첨 사실을 확인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복권당국에 따르면 줄리 서베라는 지난 5월 딸을 시켜 구입한 복권을 자동차 보관함에 넣어둔 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복권의 수령 만료일인 26일이 다가오자 복권당국은 당첨자를 찾기 위해 복권 판매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캡처해 언론에 배포했다.

서베라와 딸 마케즈는 주변 지인과 가족을 통해 신문에 게재된 사진 속 주인공이 마케즈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장애를 지닌 채 20여년간 홀로 자식을 키워온 서베라는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 루디(당시 47세)를 잃은 뒤 전기요금을 제때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서베라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일시불로 1780만 달러(약 194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이혜민기자

일본 무인기 개발 추진

일본이 무인기 개발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방위성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무인기 시스템 연구비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4일 보도했다. 4년간 30억엔(407억원)을 투입해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무인기에 장착할 열 감지 적외선 센서는 거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기는 레이더 등에서는 불가능한 낮은 고도의 북한 장거리 로켓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metro entertainment

배우 창작열에 수저 올려놓은 기분이 들어요

영화 '복숭아나무' 감독 구혜선

감독 구혜선(28)이 지난달 31일 자신이 연출한 다섯 번째 영화 '복숭아나무'로 관객을 찾았다. "너무 가까워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며 차근차근 작품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에게서 우리가 알던 '배우 구혜선' 이상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구혜선(왼쪽) 감독이 영화 '복숭아나무'의 촬영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DIRECTOR 네 편의 독립영화를 거쳐 첫 상업영화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작 '요술'에 대한 평단의 평가는 혹독했다. 한 때는 '구혜선'이라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만한 생각도 있었지만 영화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불안한 감독이 연출했으니 배우가 아무리 좋아도 영화를 걸 수 없었어요. 결국 '구혜선 필름'이라는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 작품을 완성한 뒤 투자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영까지 일 년 반이 걸렸어요."

그의 돌파구는 '참신한 소재'였다. 독특한 얘깃거리는 승부를 걸 유일한 무기였고, 언젠가 꿈속에서 만났던 샴쌍둥이를 모티프로 시나리오를 썼다.

"사람들이 '구혜선이 전하는 이별의 아픔을 가진 여자 이야기'를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하하. 늘 독특한 소재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편인데, 저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시장 논리로는 흥행 소재와는 거리가 있어요. 성공 못하면 다음 영화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 정도 고집은 연출자로서 갖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진 등 우정출연 출연료 촬영 1회차 당 1년치 식사 참신한 소재가 나만의 무기 호불호 확 갈리는게 영광

CAST 박승아 역의 남상미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은 '얼짱출신'으로 안면이 있었다. 이후 화살로 집을 빌려주고, 쌀을 얻어먹는 등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극중 따뜻함으로 상처받은 샴쌍둥이 형제 상현(조승우)과 동현(류덕환)의 마음을 녹이는 박승아는 실제 남상미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니 다름없다.

조승우와 류덕환은 회사를 통해 연락을 넣었다. 올해 스물다섯인 류덕환보다 열 살 많은 조승우지만 두 사람의 눈매와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닮아있었다. 얇은 듯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지만 같은 방향을 볼 수 없는 극중 쌍둥이 형제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가 충분히 신뢰를 쌓은 감독도 아닌데 두 분이 선뜻 답을 주셔서 무척 놀랐어요. 배급사나 제작사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배우는 작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우정출연한 배우 서현진과 최다니엘, 이준혁의 출연료는 '촬영 1회차당 1년 치 식사'다. 특히 감독 데뷔작 '유쾌한 도우미'에 출연했던 서현진은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편손 삽질' 연기를 선보였다. 이준혁은 무려 5회 치 분량을 소화해 5년 치 식사권을 획득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군 복무 중이다.

"제가 배우의 입장이라면 그 친구들처럼 못했을 거예요.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와 창작욕 있었기에 가능했죠. 전 시나리오를 쓰고 찍기만 했지, 사실 배우들이 다 같이 상의하고 의견을 모아 만든 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AIM 감독으로서 소박한 목표는 손익분기점인 35만 관객을 넘는 것이다. "요즘 영화는 10만이 넘기도 힘든 것 같다"며 쑥스럽게 미소 지은 그에게 조금 더 큰 목표를 넌지시 물었더니 망설임 끝에 '100만'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번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을 DVD 제작을 위해 필요한 관객 수다.

사진/이상기(구혜선도 버튼필) 디자인/원지영

Star bag

임슬옹 골절 불구 스케줄 강행

발등 골절상을 입은 2AM의 임슬옹이 예정된 스케줄을 강행하는 부상투혼을 보였다.

1일 응급수술을 받은 그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AM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퇴원 후 공항으로 직행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본인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 참여 의지가 강했다"며 "현지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김지원과 유비 키스신

JYJ의 김재중이 뮤직비디오에서 키스신을 촬영했다.

신인가수 백승헌의 데뷔곡 '꽃 질 때까지' 뮤직비디오에서 그는 김지원과 키스 장면을 연기했다.

이 곡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남자의 설렘을 표현했다. 허각의 '죽고 싶단 말밖에'를 만든 작곡팀 범이낭이의 곡이다.

한혜진 부친상 김강우 상주

배우 한혜진이 부친상을 당했다.

소속사는 "2일 새벽 한혜진의 부친이자 김강우의 장인이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고인의 사위인 김강우가 상주를 맡았다. 4일장으로 치뤄지며 발인은 5일이다. 한편 김강우는 한혜진의 언니 한무영씨와 지난 2010년 결혼했다.

'징역형' 강병규 방송프로 하차

방송인 강병규가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아 4년 만에 복귀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채널A '스포츠 베토벤'은 "구형받은 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3일 하차 소식을 전했다. 앞서 그는 2010년 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의대학교
DONG EUI UNIVERSITY

www.deu.ac.kr

동의대학교에서

대학병원 의사 · 美대학 교수 · KBS 기자 · 대기업 사원의

꿈을 이뤘습니다.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인터넷) http //ipsi deu.ac kr

수시2차 2012. 11. 12 (월) ~ 16 (금)

정 시 2012. 12. 22 (토) ~ 27 (목)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구분	원서접수	문의전화
대학원	2012.11.19(월) ~ 2012.11.27(화)	051) 890-1172~3
행정대학원	2012.11.01(목) ~ 2012.12.05(수)	051) 890-1158, 1178
경영대학원	2012.11.13(화) ~ 2012.12.03(월)	051) 890-1186~7
산업대학원	2012.11.05(월) ~ 2012.11.30(금)	051) 890-1192
교육대학원	2012.11.05(월) ~ 2012.11.15(목)	051) 890-1197~8
영상정보대학원	2012.10.18(목) ~ 2012.12.03(월)	051) 890-1182~3

특수대학원 최고과정

구분	원서접수	문의전화
행정대학원	2012.11.1(목) ~ 2013.2.20(수)	051) 890-1158, 1178
경영대학원	2012.12.3(월) ~ 2013.2.28(목)	051) 890-1186~7
산업대학원	2012.12.3(월) ~ 2013.2.28(목)	051) 890-1192

지구멸망 다큐 안방 찾는다

미국 방송 당시 시청률 1위
12부작 · NGC 오늘 첫방

미국에서 지구멸망 신드롬을 일으킨 다큐멘터리가 국내 안방에 상륙한다.

케이블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NGC)은 5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2012년 지구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과 이들의 처절한 종말 대비 전략을 다룬 '인류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 : 둠스데이 프레퍼스'를 방송한다.

둠스데이 프레퍼스는 미국에서 방송 당시 역대 NGC 시리즈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이후 미국 언론들은 인류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대비책을 기사로 다루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연재해와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한 무법천지가 올 때를 대비해 수개월 동안 소비할 식량과 보급품을 비밀리에 비축하고 있다. 또 사냥을 위한 합법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탈출용 차량을 개조하거나 오지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히며 생존 능력을 기른다.

12부작인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인류의 멸망을 믿는 이유와 치밀한 준비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대지진', '태양 폭발', '방사능 유출', '슈퍼 바이러스', '조류 독감' 등 매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방송한다.

한편 NGC 코리아는 방송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당신은 인류 멸망을 믿는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3256명 중 71.4%가 '믿지 않는다'고 했고, 28.6%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믿는다'고 답했다.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최근 이상 기후나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보면 인류 멸망이 먼 얘기만은 아니다" "최후의 날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SNS 상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훈계하다 맞아 숨진 가장 뒤처리 씁쓸

고교생을 훈계하다 맞아 숨진 가장의 이야기에 입맛이 쓰다. 노모를 포함해 부인과 세 아들을 부양하며 퀵서비스 사출공장,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와중에도 15년 동안 빵봉 순찰 봉사활동을 해온 그가 침 뱉는 고교생을 지적한 것이 실수였을까.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이다. 유가족은 가해자 학생의 부탁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가해자 측은 약속된 합의금은 지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이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며 기각된 것이다.

사법부에 사건 재수사 및 담당 판사 문책을 요구한다. 어찌 나처럼 법에 무지한 자가 이런 글을 써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이디 (***)

거지족
학생은 무죄입니다. 성폭행을 해도 봉사점으로 대학에 갈 수 있죠. 학생의 잘못은 그냥 쉬쉬하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살종군
김씨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교생을 나무라고 말을 듣지 않자 멱살을 잡았다 --글쓴이님 이 부분은 왜 빼먹으셨나요?

눈팅7
하여간 오지랖은 조폭한테도 해보지? 철사처벌감 이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예의다. 술게는 부모와 교사 담당이다.

크씨르크씨스
형사사건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걸까요? 사람은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우주창조자
불의에 나서는 사람 바보 취급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론 뒤에 숨어 몰래 떠미는 사람들이 꼭 먹을 거다.

/정리=정보람기자 boram@metroseoul.co.kr

기술력으로 소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선주조!
대선주조가 만드는 가장 깨끗한 소주, 즐거워예!

1. 최첨단 시설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생적이고 깨끗한 즐거워예!

먹거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한 소주를 만드는 것은 창사 이래 80년을 이어져 내려온 대선주조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선주조의 기술력이 더해져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생산시설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깨끗한 소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분당 12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 기술력. 독일 KRONES, KHS社의 최신설비
- 외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에어샤워
- 병의 균열 및 이물질 부착 여부를 검사하는 공병검사기(EBI)
-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완제품의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완제품 검사기(FBI)

2. 깨끗한 즐거워예를 보장하는 수돗물이 아닌 천연암반수100%!

즐거워예는 부산 청정지역 기장(機張) 삼방산의 깨끗한 천연암반수 100%로 생산됩니다. 소주의 80%는 물! 청정지역의 천연암반수는 오염되지 않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뒷 맛을 보장합니다.

3. 최고의 원료로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소주!

소주의 맛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원료들이 가득한 즐거워예!

- 가장 비싼 당류인 천연식물성 원료 토마틴으로 쓴맛은 DOWN! 부드러움은 UP!
- 간 보호 효과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BCAA!
-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르기닌!

4.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더욱 부드럽고 깨끗하게!

소주만 연구해온 대선주조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특히 물과 알코올의 결합방식에 주목하며 연구를 거듭했고 특허 받은 소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주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주의 맛과 목넘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향진동숙성공법
- 소주 숙성 탱크에 트랜스 듀서(음향장치)를 부착, 72시간 이상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어 음향진동을 이용, 물과 알코올 분자의 결합을 극대화
- 물과 알코올 분자간의 결합력이 증가되어 부드러운 주질, 쓴맛 없는 뒤끝!
- 특허 제 10-0799373호! 음향진동숙성을 이용한 부드럽고 순한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

나노버블 공법
- 초미세 기포인 나노버블을 만들어 제조과정에 주입, 알코올과 물 분자 사이의 결합력을 증가시킨 즐거워예 만의 최첨단 공법
- 소주 특유의 알싸한 맛은 유지하되 목넘김은 더욱 부드럽게 구현
- 나노버블은 소주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숙취해소에 탁월

5. 대선주조 기술력의 역사

80년 역사의 대선주조는 소주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소주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지금은 일반화된 스크류캡(돌려 따는 병뚜껑) 국내 최초로 도입
- 숙취 해소 성분 아스파라긴 국내 최초 첨가
- 천연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국내 최초 첨가

견학 문의 : 051)500-0272 www.ye.co.kr ＊주말 당일 견학 가능합니다.

날씨

11/5 月 일출시각 07:01 일몰시각 17: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서울 9/12 · 춘천 7/15 · 대전 7/12 · 전주 7/14 · 광주 7/14 · 제주 11/15 · 강릉 11/16 · 울릉도 12/15 · 대구 · 포항 11/18 · 울산 · 부산

날씨가 쌀쌀하고 대기가 건조해 코와 목의 점막이 민감해집니다. 틈틈이 유지와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천식지수	
게실통 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대병원 (www.snuh.ac.kr)

월요회의를 기억하며

김경선의 모놀로그

월요일자 '메트로'에 나갈 이 글은 대개 그 전 주의 토요일 오후에 쓰는데 나는 이 짧은 글을 쓸 때마다 월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러 일터에 나가는 심정은 어떨까 하고.

돌이켜보면 회사원 시절 월요일의 백미(?)는 주간 팀장회의였다. 부서가 꽤 많아 팀장들만 내 회의실에 모여도 꽉 찼다. 부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팀장들은 돌아가면서 지난주 진행된 업무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번 주 진행할 업무를 보고했다. 부사장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추가 지시를 내렸다. 팀장들은 다들 별말 없이 자신의 차례가 지나가길 바라는 표정이었다. 어서 이 회의가 끝나고 커피 한 잔이나 담배 한 모금 하러 갈 마음만 굴뚝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럴 틈도 없이 주간 팀장회의가 끝나면 개별 팀 내에서 주간 팀 회의를 주재해야 하곤 했다. 이번에는 팀원들이 각자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면 내가 그에 대해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는 식이었다. 아마 팀원들도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기를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었겠지.

오랜 기간 빠짐없이 매주 이렇게 위아래로 회의를 들어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신이 먼저 일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겠다거나 만들어내겠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괜히 일 벌였다간 실패할까봐 두렵고, 동료들한테는 설친다며 견제당할까봐 두렵고, 무엇보다도 상사가 사람들 있는 앞에서 핀잔 줄까봐 두렵기도 했다. 가뜩이나 안 그래도 피곤한 일 투성이인데 일부러 피곤한 짓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 양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튀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지내는 것이 직장인의 올바른 자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을 하는 큰 재미 중의 하나는 무모하더라도 덤벼보거나 도전하는 즉 재를 던지는 일일 것이다. 조직이 상명하달이나 시스템 체계를 의미할 때 그것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피차간에 불행한 일. 사람이 자기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대개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때 아닌가.

/칼럼니스트 askcatwoman@gmail.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5		
				3		6		2
5			4	9			3	
			6					1
		2	3		1	8		
3					7			
	2			4	5			6
6		8		1				
		1				7		

2		6	8		3	4		9
		9	2		5	7		
	7						6	
			5		7			
5								8
			3		2			
	9						3	
		3	6		4	8		
8		7	1		9	5		6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공무원 시험 계속해서 떨어져 제조업 직장 취업뒤 후일 기약

bonga 남자 82년 10월 13일 음력

Q 남자로 공무원 시험을 3년 준비하였으나 계속 5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셔서 제 공부 뒷바라지하시는 것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내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번 더 해야 할지 접고 취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운이나 입사운이 궁금합니다.

A 살다 보면 누군가는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공이 쉽게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해도 해도 어려움만 있게 되듯 귀하는 노력이 2~3배 요구되는 사주입니다. 잔잔함으로 잘 위로 솟아오르는 '싹'과 같아 성실한 면은 돋보입니다. 계사년(癸巳年)인 2013년도 어렵게 펼쳐지는데 2014년에 가 되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직업운이 이전칙히(剃頭斷花) 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잘라버린(?)하고 있어 운세가 약하니 노력한 시간은 아깝지만 순서대로 이력서를 넣고 출근하십시오. 식품가공업종이나 제조회사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한 부인을 만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양심적이고 인정이 많다 보니 나이들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빚더미 남편 탓에 이혼하고 싶어 어렵겠지만 힘 합치면 행복 활짝

진래이 여자 81년 10월 16일 음력
남자 81년 5월 13일 음력

Q 결혼 전 남편의 성실함을 보고 결혼하였으나 대책 없는 아파트 대출금과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빚이 많은 것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임신까지 되어 현재 8개월 차입니다. 생활비 한 푼도 안 남으니 아이 낳고 양육권까지 다 주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A 결혼생활이란 이론적으로는 사랑과 관용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그 두 가지가 다 희석되어 경제적 여건이 해소될 수가 없어 2017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 생극합시(生剋合刑)요, 사족질병(蛇足疾病)이라 했습니다. 남편의 순수함과 성실함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아랑을 베풀고 힘을 합치면 웃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2013년도 마음 먹은 대로 살림이 풀리기 어렵거나 얘기가 나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고생스럽겠지만 현재의 부채를 털어내면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월 일 음력 양력,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22일) 박청화 철학원 051)863-8305

쥐 84년생 올바른 태도와 성실성이 관시를 제공할 듯. 72년생 외형보다 내실을 기해라. 60년생 친구와 결속으로 어려움의 극복이 있을 듯. 48년생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

소 85년생 두툼한 사교성을 보여줄 태도와 형상은 같하다. 73년생 정도를 걸어야 뒷탈이 없어진다. 61년생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포기하는 것도 봐야. 49년생 배우자의 인기에 편승해야 좋은 성과가 있을 듯.

호랑이 86년생 뒤거긴에 좀 지나야 기운과 운세가 상승할 듯. 74년생 호시탐탐의 형산에 대비해야. 62년생 떨어진 금전의 운세가 다소 회복될 듯. 50년생 공짜보다는 실천의 미덕을.

토끼 87년생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75년생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일이 풀릴 듯. 63년생 매사에 신중해야 좋을 듯. 51년생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도 대접해야.

용 88년생 건재를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라. 76년생 수하들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될 수도. 64년생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여유를 가져야. 52년생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는 법이니 낙심하지 말아야.

뱀 89년생 친구와 한판의 승부수를 나타낼 듯. 77년생 장난처하면 짐을 지게 되니. 65년생 행동의 자학이 따를 듯. 남의 눈을 의식할 일이. 53년생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운세.

말 78년생 스스로를 한정할 수 있어야. 66년생 추진력과 적극성을 보이면 이익을 더할 듯. 54년생 재물의 승부수가 다가오는 운세. 42년생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양 79년생 친구에게 의존해야 좋을 듯. 67년생 선배와 형사장의 충고에 의지해야 좋을. 55년생 짐을 떼는 빨리 감을 수 있어야. 43년생 건손함과 바른 행동의 이득을 지녀야.

원숭이 80년생 욕망의 절제를. 다음을 기약해야. 68년생 어머니의 미소가 생각나는 하루. 56년생 전환점이 되는 하루.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44년생 통 큼과 관방의 의미는 가급적 살가야.

닭 81년생 표현이 지나치면 질투를 받을지도. 69년생 주위의 인사와 주목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모든 사안이 내게로. 57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법. 45년생 입회절벽하는 흐름.

개 82년생 행운의 여신이 흥미하는 하루. 70년생 금전의 재사정이 대체의 운기를 불러오고 있다. 58년생 투자의 감신이 미소 짓는 운세. 46년생 육과 마음의 통 완화이 다소 있을 듯.

돼지 83년생 타인을 무시한 만큼 본인 또한 무시당할 수 있으니. 71년생 공경과 배려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59년생 잠재기를 키워야 할 듯. 47년생 행동의 동선이 불편하니 롤러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주)콜렉트대부 [2011-서울강남-0084]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 회원번호 A00024

신용대출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지금, 전국 10개 지점에서 친절한 루스모를 만나보세요

☑ 인터넷대출 신청 O.K ☑ 자점방문대출 신청 O.K
☑ 모바일대출 신청 O.K ☑ 전화대출 신청 O.K

루스모 수시출금서비스

365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으로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방법과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연 39% 이내 (연체금리 연 39% 이내, 이자외 추가수수료 일체 없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역삼동 705-9 삼흥빌딩 4층) 등록시도 명칭 서울시 강남구청(대부업 담당 02-2104-1981), 도봉구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인천시 부평구청 대전시 대전시청, 대구시 중구청 광주시 동구청, 제주도 제주시청 경기도 수원시청

일 오 육 육 탱~탱 **1566-1010**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루스모 ▼ 지금 검색창에 루스모를 쳐보세요 www.lusmo.co.kr

영화장터 '파리만 날리네'

경제위기 유럽 바이어 발길 '뚝' 퀄리티 높은 작품 부족 지적도

아메리칸 필름 마켓 리포트

지구촌을 강타한 불경기 탓인지 전 세계 2000여 편의 영화가 매물로 쏟아지는 북미 최대의 영화 장터 2012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이 썰렁하기 그지없다.

다시 말해 팔려는 사람은 그대로 였지만 사려는 사람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거래의 시작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매년 AFM을 찾고 있는 한 국내 해외 세일즈 업자는 "누가 상을 받느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행사의 열기를 끌고 가는 칸과 베를린 등 일반적인 해외 영화제와 달리 AFM은 행사 초반에 대부분의 일이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며 "그러나 올해는 경제 위기에 빠진 유럽 바이어들을 비롯해 (각 세일즈 업체의 부스가 차려진) 호텔방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다.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물론 영화 수출 수입 비즈니스의 특성상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현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켓은 관계는 일년 전 미리 시나리오의 완성도와 캐스팅, 제작사의 능력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던 바이어들이 완성본 혹은 예고편을 확인한 뒤 본 계약의 이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자리다. 사고파는 사람들로 꼭 북적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올해는 사람들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로 세일즈 쪽에선 바이어들의 안 좋아진 호주머니 사정을, 바이어 쪽에선 퀄리티 높은 작품들의 부족을 각각 지적한다.

양쪽의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떠나 무엇이 됐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돈으로 모아진다.

마켓에서 주목받는 상업영화의 퀄리티란 것도 결국은 자본의 많고 적음이 80% 이상 좌우하니까 말이다.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곳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표심 역시 오바마와 롬니 둘 중에서 누가 과연 경제를 살릴 것이냐에 몰릴 전망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 비즈니스와 정치 둘 다 핵심은 돈이다. 돈 때문에 선거 열기가 뜨거운 미국 사회와 돈 때문에 풀 죽어 있는 AFM을 현지에 와 지켜보면서 새삼 느끼게 된다.

각국 바이어들의 사무실이 들어선 산타모니카 로이스호텔 앞이 한적하다.

/산타모니카=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엄태웅 "내년 1월 결혼해요"

배우 엄태웅(38·사진)이 내년 1월 디섯 살 연하의 발레리나 윤혜진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는 4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1박 2일'을 통해 "미안한데 나 장가간다"고 깜짝 발표해 멤버들과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예비 신부 윤혜진씨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의 재원으로 원로배우 윤일봉의 딸이다. 이들은 올해 중순 처음만나 진지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윤혜진씨는 현재 임신 5주차 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결혼 소식에 기쁨을 더했다.

엄태웅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험한 삼성을 지난 예비신부에 가슴이 끌렸다"며 결혼소식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전했다. 예비 신부 역시 "엄태웅의 성실한 면모에 크게 호감을 느꼈다"고 화답했다.

소속사 심엔터테인먼트는 "엄태웅이 '1박 2일'에서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멤버들을 비롯한 시청자들과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나누고자 했다"고 결혼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의 결혼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11일 방송을 통해 추가로 공개된다.

/김보람기자 kwon@

유키스, 페루 콘서트 대성황

그룹 유키스가 남미 프로젝트의 신호탄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이들은 2일 페루 리마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모뉴멘탈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7000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3일에는 팬미팅을 개최하고 2000여 명을 불러모았다.

현지 최대 방송국인 아메리칸 채널은 이들의 특집 생방송 토크 프로그램을 긴급편성 했으며, 앞서 5월 룰루팔루자 페스티벌에 아시아 가수 최초로 무대에 서며 5만 관중을 열광시켰다.

소속사 측은 "현재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지에서 프로모션 일정을 협의하고 내년 하반기 투어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70~80년대 미남배우>

잘나갔던 A가 말단점원

연예가 소곤소곤

▶美 한인타운 대형마트서 일해

1970~80년대에는 미남 배우로 90년대에는 비디오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A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의 그는 남루한 차림새로 중년의 한인 동포들과 어른객들이 자신을 알아보거나 알거나 않던 점원으로 극진히 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 참석차 한인타운에 머물다가 우연히 A를 알아본 국내 한 영화인은 "차라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잡은 작품 놓친 라이징스타B

중 여배우들의 저울질과 제작사의 독선에 라이징 스타 B가 다 잡은 작품에서 밀려났습니다. 참신한 마스크와 탄탄한 연기력의 B는 최근 스타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에 여주인공으로 내정 됐었는데요. 한류스타 C가 다른 작품과 간을 보다 빠지고 바통을 넘겨받은 D는 자존심 상한다며 거절한 끝에 오매불망 순서만 기다리던 B에게 차례가 온 만큼 기대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출연이 거의 확실시된 B양의 희망을 짓밟은 건 어처구니없게도 제작사의 등에 업혀 굴러 들어온 돌 E인데요. 관계자들은 은근히 B의 연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E와 제작사의 횡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쉬운 입맛을 다시고 있는 중입니다. E가 과연 얼마나 좋은 연기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디션스타F 실제로는 까칠

훈훈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오디션 스타 F가 방송에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스태프들의 분통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는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주얼은 조금 떨어졌지만 탄탄한 실력과 무엇보다 고운 심성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었는데요. 그런데 콤플렉스 탓인지 의상은 물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하나까지 까탈스럽게 따지는 통에 담당 스태프들 사이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걸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봐야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스태프는 "역시 외모가 출중하면 성격도 좋다"는 쓴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성그룹 G 타고난 바람둥이

한 남성그룹의 멤버 G가 타고난 바람둥이 기질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갓 스무살을 넘긴 이 멤버는 평소 클럽을 제 집 드나들 듯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음악성과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만나는 누나들마다 한 방에 사로잡는 '마성의 사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수가 무려 10여 명이 넘는다는데요. 그는 "클럽에 가고 즐기는 것도 음악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같은 팀 멤버는 비난하기보다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예팀

수능생 2만명에 홍조 무료증정 대상 청정원의 인기제품인 홍초가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20여 개 학교를 찾아 나섰다. 7일까지 청정원 홍초는 대입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총 2만여 개의 홍초 파우치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스키시즌 막 올랐다

이른 추위에 강원일대 슬로프 개장 잇따라

겨울 시즌만 손꼽아 기다려온 스키매니아들이 지난 주말 설원을 질주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가 지난 2일 문을 열고 겨울 시즌 막을 올렸다.

최근 몰아친 기습 한파로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일찍 개장한 것. 휘닉스파크는 800m에 달하는 펭귄 슬로프 1개 코스를, 용평리조트는 핑크 슬로프 1개 코스를 우선 오픈했다.

이른 개장에 맞춰 휘닉스파크는 스키·보드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시즌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에게 스키 시즌권, 숙박권, 리프트권 등을 선물한다.

이밖에 춘천 엘리시안 강촌은 첫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엘리시안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은 23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pjw@

치즈 넣은 '똑똑한 도시락' 먹고 합격!

고3 자녀를 둔 부모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친구나 조카, 동생 등이 있다면 덤덤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도시락을 선물해보자. 수험생용 도시락은 포만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배를 채워야 하고 소화도 잘 돼야 한다. 두뇌회전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과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는 좋은 재료 중 하나다. 매일유업 상하치즈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똑똑한 메뉴인 '모차렐라 랩 샌드위치'를 제안했다.

◆ 모차렐라 랩 샌드위치 만들기

재료: 모짜렐라 슬라이스(또는 까망베르 슬라이스) 5장, 토르티야 4장, 칵테일 새우 20개, 레몬 슬라이스 1쪽, 방울토마토 10개, 새싹채소 1팩, 오이피클 2쪽,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식초 1큰술, 설탕 1/2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

1. 끓는 물에 자른 레몬과 칵테일 새우를 넣어 살짝 데친다.

2. 올리브유, 발사믹식초, 설탕,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골고루 섞는다.

3. 치즈는 2~3장 겹쳐 1cm × 3cm 크기로 썬다. 방울토마토는 4등분, 피클은 채 썬다.

4. 발사믹 소스에 모든 재료를 버무린 후 토르티야에 올려 돌돌 만다.

/전효순기자 hjeon@

'스팀보이 온수매트' 전자파·난방비 걱정없네

동양이지텍의 '스팀보이 온수매트'가 올 가을 겨울 시즌에 맞춰 신제품을 출시했다.

2012년형 스팀보이(T-1200) 온수매트는 전기 열선 없는 온수순환 방식이라 전자파는 물론 난방비 걱정까지 덜어주도록 한 제품이다.

온수매트의 핵심인 보일러의 경우 신제품 스팀보이는 기존의 사각 또는 원형의 모양에서 탈피해 침실 인테리어에 맞도록 디자인했다. 스탠드 형태의 삼각 원뿔 모양으로 침실 조명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런 디자인으로 2012 굿 디자인 우수디자인 제품(전기전자제품류)으로 선정됐다.

매트는 기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세탁 부분을 고려해 카버원으로 제작, 오염이나 땀 등을 세탁할 수 있게 했다.

TV 홈쇼핑 방영 때마다 대박의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내일(6일) 오전 9시20분 CJ오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1588-9902

"청소년 영화, 청소년이 못본다니요"

미성년 성범죄 다룬 '돈 크라이 마미' 재심의 요구 쏟아져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자 재심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영화사는 작품의 기획의도를 고려해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화 관계자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과 SNS에는 청소년관람을 요청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쇄도했다. 제작진은 공식 트위터에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돈 크라이 마미'는 누구보다 10대들이 꼭 봐야 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게재된 지 몇 시간 만에 1400여 건이 리트윗됐다.

/유순호기자 suno@

축구로 하나된 다문화 '화기애애'

뉴트리라이트 축구교실과 함께한 지구촌 한마당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리쬔 지난 3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경기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쾌하게 퍼졌다. 한국암웨이가 주최한 '뉴트리라이트 축구교실과 함께하는 지구촌 축구 한마당'의 현장이다.

◆ 한국암웨이의 사회공헌활동

올해 11년째 열리고 있는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축구교실'은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한국암웨이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올 가을엔 더욱 특별해졌다. 다문화팀이 새롭게 창단돼 아이들은 각국의 깃발과 전통 의상을 입고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뉴트리라이트 축구교실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총 10개 팀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 5개 지역에서 모인 뉴트리라이트 축구교실 회원과 다문화 축구팀 어린이들이 축구로 하나가 되는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지도를 핸드프린팅으로 색칠해 완성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 아트사커 묘기에 탄성 쏟아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어린이들의 축구 경기였다. 아트사커 부문 세계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인 허남진씨의 축구묘기 시연이 이어져 아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민속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전통 음식 체험 이벤트'가 마련돼 엄마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암웨이의 노원호 상무는 "앞으로도 한국암웨이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효순기자

한국암웨이 노원호 상무(가운데)와 뉴트리라이트 축구 교실 어린이들이 다문화 축구팀 창단을 기념해 핸드프린팅한 세계지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다문화 전통 음식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다문화 이웃들의 모습

거울아, 어려보여라~

'볼륨세럼' '수분필러' 등 애칭 얻은 안티에이징 화장품 써볼까

차갑고 메마른 날씨에 푹 꺼진 볼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도 같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동안 피부'의 비밀은 바로 '볼륨감'에 있다. 올 가을 뷰티업계가 세월의 흔적을 채워주는 '볼류마이징(volumizing)'에 주목했다.

메리케이는 볼륨과 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타임와이즈 플러스 리제나-렐 인텐시브 세럼'을 선보였다.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피부에도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해 '볼륨 세럼'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특히 얼굴과 목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은 수분 부족. 오리지널 로우의 수분크림 '블랙탑'은 피부에 '물벽'을 형성해 미르지 않는 보습력을 전달한다. 또 주름 사이사이에 수분이 침투해 마치 '수분 필러'를 맞은 듯 탱탱한 얼굴로 가꿔준다. 파라벤, 인공색소 등 10가지 유해 성분을 제거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동안 피부'를 대표하는 배우 신민아는 헤라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토임'을 애용한다.

이 제품은 헤라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앰플과 안티에이징 핵심 성분을 함유해 보습과 영양을 보충,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아준다. 신씨는 "기초 화장품에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 바르면 피부에 얇은 막이 형성돼 하루 종일 촉촉한 물광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

피부과 시술 전후 케어 화장품으로 유명한 '이지듀'는 피부 재생 성분인 EGF를 담아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대표 제품인 '이지듀 EGF 리페어 컨트롤'은 고농축 EGF 성분이 피부 속부터 새살이 차오르게 한다.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깊은 팔자주름은 간단한 '쁘띠 시술'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래디어스의 칼슘 필러'는 높은 탄성과 점성을 지녀 시술 부위가 쉽게 퍼지지 않고, 히알루론산 필러에 비해 지속력이 긴 게 장점이다.

/서하늘기자 sky@metroseoul.co.kr

정여사 제친 브라우니 이번엔 의류모델 데뷔

개콘의 브라우니가 의류 모델로 데뷔했다.

제일모직의 빈폴의 겨울 의류 '클래식 다운'의 모델로 KBS2 개그콘서트에 등장하는 개 인형 브라우니를 선정했다.

브라우니는 '북극 썰매 개'로 유명한 시베리안 허스키를 본따 만든 인형으로 개그콘서트의 '정 여사' 코너에 나오며 인기를 얻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인형이 사람을 대신해 모델이 된 것은 국내 패션업계 사상 최초"라며 "브라우니는 올 겨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피부측정하고 '피테라 에센스' 받아요

SK-II 플래그십 스토어

화장품 브랜드 SK-II가 '피테라 에센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진작가 조세현 작품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피테라의 기원인 주조사 스토리를 담은 영화 등 피테라 에센스의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작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피부 측정 시스템인 '매직링'을 통해 자신의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볼 수도 있다.

이달 30일까지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있는 SK-I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되며, 방문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피테라 에센스 30ml 샘플을 선착순으로 준다.

/박지원기자 pjw@

'통 항공권' 시즌5 나왔다

필리핀항공이 인천~마닐라 구간의 묶음항공권 '통 항공권 시즌 5'를 15일까지 판매한다.

시즌 5에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통'과 연인·가족·친구 등과 함께 쓸 수 있는 '커플통'을 선보였다.

'마이통'은 총 3가지로 이코노미석 3매에 29만7000원, 5매 45만원, 비즈니스석 3매 99만원이다. '커플통'은 이코노미석 2매 23만8000원, 4매 43만6000원, 비즈니스석 2매 66만원, 4매 132만원 등 총 4가지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세금 및 유류 할증료 불포함.

문의 www.pal.com

"역시 기성용! 대어 맞네"

첼시전 풀타임 뛰며 무승부 견인 평점 7… 손흥민 득점포 실패

기성용(23·스완지시티·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 첼시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다.

스완지는 4일 오전 열린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43분 터진 파블로 에르난데스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거뒀다.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3경기 연속 풀타임(리그컵 포함)을 소화하며 힘을 보탰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스완지(3승3무4패·승점 12)는 리그 11위를 유지했고, 첼시(7승2무1패·승점 23)는 이날 승리를 거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8승2패·승점 24)에 선두 자리를 뺏겼다.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는 "대단한 계약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기성용에게 평점 7을 부여했다.

선덜랜드의 지동원은 아스톤빌라전에 결장했다. 팀은 0-1로 졌다.

이청용(볼턴)과 김보경(카디프시티)은 챔피언십(2부 리그)에서 첫 '코리안더비'를 펼쳐 이청용이 웃었다.

볼턴은 다비드 은고그와 마틴 페트로프의 연속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청용과 김보경은 팀의 측면 공격수로 나란히 선발 출전해 맞대결했다. 이청용은 후반 33분까지 78분간 그라운드를 누볐고, 김보경은 후반 24분 에런 아이너 군나르손과 교체 아웃됐다. 다만 김보경은 후반 21분 페널티박스 내에서 은고그의 발을 건드려 볼턴에 페널티킥을 내주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 구자철 하노버전 복귀

분데스리가에서는 손흥민(함부르크)이 강호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득점포를 노렸지만 실패했고, 팀은 0-3으로 완패했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역시 하노버전에서 두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팀의 0-2 패배를 막지 못했다. 지난 9월 1일 샬케04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인대를 다쳐 재활에 매진했던 그는 후반 23분 날리치 무소니의 교체 투입돼 2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구자철은 오른쪽 측면을 휘저으며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비록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구자철이 투입되고 난 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은 눈에 띄게 살아났고, 이후 자주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프리메라리가 박주영(셀타비고)은 바르셀로나전에서 1-3으로 뒤지고 있던 후반 35분 교체 투입돼 13여 분을 뛰었다.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전날 아이 아빠가 된 박주영은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해 몸이 무거워 보였고, 결국 골 사냥에 실패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서울 정조국 값진 동점골

7연패 '수원 징크스' 탈출 · 전남·강원 강등권 벗어나

FC서울이 지긋지긋한 '수원 징크스'에서 탈출했다.

서울은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38라운드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40분 정조국의 극적인 동점골로 1-1로 비겼다. 이로써 서울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작된 수원전 '슈퍼매치' 7연패 사슬을 끊었다. 또 수원을 상대로 6경기 연속 무득점의 부진에서도 벗어났다.

전반 23분 수원의 미드필더 이상호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서울 최용수 감독은 후반 22분 몰리나를 빼고 정조국을 투입했다. 정조국은 후반 24분에 완벽하게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왼발 슛을 날리며 예열했다. 이어 후반 40분 하대성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북은 이동국의 2골 원맨쇼에 힘입어 부산에 3-0 완승을 거뒀다.

강원은 대전과의 경기에서 지쿠·심영성·백종환·웨슬리·김은중의 릴레이골이 터지며 5-1 대승을 거뒀다. 전남은 대구 원정에서 전반 25분 터진 박선용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1-0 승리를 낚았다.

FC서울 공격수 정조국이 4일 열린 K-리그 38라운드 수원전에서 후반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남은 이날 승리로 승점 40을 올리며 광주(승점 36)와 격차를 벌렸고, 강원 역시 승점 38로 광주에 앞섰다.

/김민준기자

선두 달리던 이보미 "아쉽다!"

LPGA 미즈노클래식 준우승 — 루이스 막판 버디쇼 역전승

이보미(24·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이보미는 4일 일본 미에현 시마시 긴테쓰 가시코지마골프장에서 끝난 3라운드에서 이븐파에 그쳐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2위와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그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1타도 줄이지 못했다. 반면 '미국의 희망' 스테이시 루이스는 이날 3언더파로 출발해 버디 10개(보기 2개)로 무려 8타를 줄이는 '버디쇼'를 펼치며 역전 우승(11언더파)을 일궈냈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서 18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30점을 보태 2위 박인비와의 격차를 58점으로 벌렸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 17위(3언더파)에 머물러 올해의 선수 부문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최나연과 서희경, 제미고조 해니신 등이 나란히 공동 5위(6언더파)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ML 도전 류현진 FA 37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괴물' 류현진(25·한화)이 자유계약선수(FA) 랭킹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ESPN은 3일 올 겨울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50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류현진은 이중 전체 37위를 기록했고, 투수 가운데 전체 20위, 좌완투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ESPN이 선정한 순위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않았던 선수는 류현진과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로 꼽히는 후지카와 규지(한신) 뿐이다. 후지카와는 30위에 랭크됐다.

대한항공 V리그 개막전 승

대한항공이 NH농협 2012-2013 V-리그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대한항공은 4일 열린 개막전에서 러시앤캐시의 추격을 힘겹게 뿌리치고 3-1(23-25, 25-23, 25-17, 25-20)로 이겼다.

김학민이 군입대까지 미룰 정도로 올 시즌 우승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은 이날 2년 차 외국인 선수 마틴이 20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류윤식이 12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감독를 계제로 탈바꿈한 러시앤캐시는 새롭게 선보인 외국인 선수 다미가 18득점(공격성공률 43.58%)으로 무난한 활약을 펼쳤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역전패했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사표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역할을 바꿔 가며 말해보세요.

상황 설명 > 전날 만나기로 한 곡이 나타나지 않아 궁금해하는 친구

A What day is today, Rick?
B Today is Monday.
A 넌 어제 어디에 있었니?
B I went to the hospital. 내 아내가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
A Oh, no. How is she now?
B She's better now. Thank you.
A Weren't you in D.C. for a few days?
B Yes, I was. 난 12월에 몇 주 동안 DC에 있었지. I was in D.C. for a few weeks in December.

정답 Where were you yesterday? / My wife was in the hospital for several weeks. / I was in D.C. for a few weeks in December.

생생영어팁

▶ When is it due?

그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예요?

due(~하기로 되어 있는)는 보통 기한을 말할 때 씁니다. The report is due on Thursday 라고 하면, 그 보고서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기한을 묻고 싶을 때는 '이건 언제까지가 기한입니까?' 즉 When is the due? 라고 말할 수 있죠. be due는 앞으로 세상에 나올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쓰입니다.

ex A When is the baby due? 출산 예정일이 언제죠?
B The baby's due next month. 아기는 다음달에 태어나요.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Unfortunately ______ of the two venues has the capacity needed to host Taal Technology's annual banquet.
(A) most (B) several
(C) neither (D) some

02 Today, methods of fuel conservation are being discussed more ______ in industry publications.
(A) frequented (B) frequenting
(C) frequently (D) frequent

01. 유감스럽게도 두 장소 중 어떤 곳도 타알 테크놀러지의 연례 연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좌석 수를 갖추지 못했다.
해설 neither가 정답이다. ... 반면, most, several, some 등은 뒤에 복수명사(two venues)가 오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쓴다.
어휘 venue 장소 capacity 수용 능력 banquet 연회
정답 (C) neither

02 오늘날 연료 절감의 방법들이 업계 출판물들에서 더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해설 ... 동사 discussed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부사인 frequently(자주, 종종)를 쓴다.
어휘 fuel conservation 연료 절약 publication 출판물 frequent ~에 자주 가다; 빈번한
정답 (C) frequent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전치사 활용하여 읽기

Part 4에서 제시된 표에 있는 정보를 문장으로 말할 때는 단순히 장소나 숫자 등의 정보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나 시간에 맞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붙여서 답해야 합니다.

• 시간 전치사

at 시간과 함께 씁니다
at 4:30 P.M. 오후 4시 30분에 / at noon 정오에
at the beginning[end] of the meeting 회의 시작[끝] 무렵에

on 요일, 날짜, 특정한 날과 함께 씁니다
on Tuesday 화요일에 / on May 15 5월 15일에

in 월, 연도 등과 함께 씁니다
in August 8월에 / in 2014 2014년에

Tip 요일, 날짜, 연도를 같이 말할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예) on Monday, June 4th, 2012
every day(매일), next Thursday(다음 주 목요일에), this morning(오늘 아침에), last night(어젯밤에) 등과 같이 전치사 없이 쓰이는 시간 표현도 알아두세요.

삼성라이온즈 2012 한국시리즈 우승!

SAMSUNG